

# “고3 수험생 피해 없어야”

###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학력평가·수능 일정 변경 등 점검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고3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휴업 장기화에 따른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수능 일정 변경 등의 내용을 점검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현재 고3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 자체를 못하고 있고, 또 언제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반수생, 재수생, 삼수생들은

고3 교육과정을 다 이수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는 고3 학생들에게는 핸디캡이 주어지는 것이고, 재수생들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불공평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시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고3 진도를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고3 학생들과 N수생들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정상적으로 학습을 마친 고2 과정까지만 출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어떻게 하면 고3 학생들에게 피해가 적

게 갈 수 있는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포함된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서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학교 방역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독제 잔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주고, 방역소독 참여자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식당 테이블에 안전 칸막이를 설치했다.

## 호원대, 교내 식당 테이블 안전칸막이 설치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식당 테이블에 안전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6일 호원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숙사 식당을 포함한 교내 전체 식당 내 테이블에 안전칸막이를 설치했다. 현재 대학본부 학생식당 한 곳만 운영중이다.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외부인은 “처음엔 테이블이 비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간도 넓어 식사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면서 “이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이기 때문에 일반 식당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학교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점심식사는 호원대학교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성 총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위해 더욱 철저히 방역과 소독을 실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식당 테이블 안전칸막이 설치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전체 교직원 및 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 13일 대면강의 일자를 다음 달 6일로 변경했다. /장은성 기자

## 온라인 개학 ‘1만 커뮤니티’ 활동 본격

### 학교별 원격교육 선도 교원 1만명... 현장 소통 창구 역할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사활 앞두고 각 학교별 원격교육 대표 교사 1만명과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1만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에서 온라인으로 학교별 원격교육 선도 교원 1만명을 임명했다.

‘1만 커뮤니티’는 전국 약 1만개 수

준인 초·중·고교에서 각 1명씩 원격교육 대표교원으로 이뤄진 공동체다. 교육부·교육청 등 지원기관 간 실시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 관련 애로사항이 제기되면 빠르게 대응하고, 정책·제도에 대한 해석과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위두랑’에는 지난 3일 기준 8946명(89.5%)이 가입했다. 1만 커뮤니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EIR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참여하는 전국 중앙단위 1개와 시도별로 17개, 전국 490개 시범학교 커뮤니티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자율적인 온라인 소통을 바탕으로 원격수업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집단성 사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임명식은 영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사용해 이뤄졌다. 교육부TV 유튜브 채널(youtu.be/9Dg9vshjvB8)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뉴시스

## 전북교육청 “학교 자체 온라인 수업 사전점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온라인 수업 사전점검을 운영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교 자체적으로 온라인 강의 모의수업을 운영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모의수업은 본격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각 학교의 모든 학생과 전교과 교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고3·중3학년은 6~8일 사전점검 후 9일 온라인 개학, 고1,2·중1,2·초4~6학년은 10~14일 사전점검 후 16일 온라인 개학을 진행한다. 또 초

1~3학년은 14~17일 사전점검 후 20일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점검사항은 학생의 온라인 참여 여건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사전점검을 통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개학 전 보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 영상을 지난방 송 보기로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에서는 올해 4.4 시위 6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 민주화 운동... 선배들을 기억하자

### 전북대 4.4시위 60돌기념행사 다채... 학술전시회 등

1960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4.4 시위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학생 시위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4.4 시위 60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와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정치연구회, 지방자치연구소 등은 지난 4일 구정문 인근 4.4 시위 기념비 앞에서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10일까지 전북대 인문사회관 1층에서 4.4 시위 학술전시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의와 내용 등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전북대에 재학 중인 한국정치연구회 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선배들을 기억하기 위해

현장 방문 캠페인을 벌였고, 이후 SNS 등을 통해 4.4시위 현장 다시 걷기 캠페인 등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 4.4 시위는 1960년 4월 4일 전북대 개강일에 맞춰 당시 정치학과(現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주축으로 이승만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규탄 데모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선언문을 작성해 전라북도가 동학혁명의 발상지이며 3·1 만세운동과 6·10 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민주 선열들의 뒤를 이어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 결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장은성 기자

##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선정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송석구)이 지원하는 ‘2020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과학·IT분야에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새만금창의융합센터는 2011년 이후 10년차 연속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공한 군산지역 교육복지사업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34명에게 1년간 총 105회의 과학·IT 전문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창의 놀이터/기초·심화·사사과정으로 운영되는 과학 및 IT분야 단계별 탐구 학습 ▲놀이터특강/진로특강, 생물 및 해양생태특강, 디지털교육 등 전문가 초청 강연 ▲유쾌한 놀이터/체육대회, 봉사활동,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수창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장(군산대 화학과 교수)은 “과학·IT 창의융합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과학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금으로 진행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